

에코시티·삼봉지구 학교 설립 추진

유·초·중 4개교 학교 설립 계획 자체투자심사 통과... 2024년 3월 개교 목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전주 에코시티와 완주 삼봉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개발 단지 내에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 에코시티와 완주 삼봉지구에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유·초·중 4개교의 학교설립 계획을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주 에코시티 과밀학급 해소와 함께 제3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제3초등학교는 에코시티 2단계 개발 지구 안에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부지 조성이 늦어 학교설립이 지연되면서 전주화정초와 전주자연초의 과밀학급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전주 에코시티 제3초등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설립 규모는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 총 37학급이다.

또 전주 에코시티 중학교 설립 추진

도 계속된다. 전라중 이전·신설이 지난해 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았으나 전라중학교 이전 후 현 전라중 부지 활용계획(전주교육지원청 이전)을 보완해 4월 재도전한다.

이와 더불어 완주 삼봉지구에는 삼례동초 신축·이전과 완주삼봉유치원(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이번 학교설립은 총 5,940가구의 대단위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삼례동초는 1949년 개교해 2020년 4월 1일 기준 현재 6학급(5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농촌학교로, 완주 삼봉지구로 이전하면 총 31학급(특수 1학급 포함)으로 설립된다.

특히 완주삼봉유치원(가칭)은 일반 9학급·특수 3학급 등 총 12학급으로 설립 예정이다.

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 예정 세대 학생들의 통학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는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새로운 비대면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계기

전주교대, 2020년도 재정지원사업 성과보고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25일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에서 2020년도 재정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YouTube)로 생중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예비교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21세기 핵심역량 기반 전공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등 총 13개 세부프로그램이 성과항목에 운영됐다.

또 육성지원사업은 '미래 사회를 개척하는 창의융합인재육성'을 목표로 지역사회 기여, 고등 교육기회 확대,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 구축, 대학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 4개의 추진전략 아래 21개의 세부프로그램을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정영식 기획처장은 “작년은 코로나19로 많은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참여자도 많이 줄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비대면 콘텐츠의 개발역량이나 교수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전주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예비교사로서 교육현장의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여러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영 총장은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표는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일맥상통하다”며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를 기회삼아 우리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초등교원의 전문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현장기반 교사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는 25일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에서 온라인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장 주도 교원 성장토록 적극 지원”

전주교대 2021학년도 입학식 온라인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25일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에서 온라인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입학식 대상자는 총 347명(학부 303명, 교육대학원 44명)으로, 전문초등교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작년 급작스레 발발한 코로나19로

인해 입학식, OT가 모두 취소됐다. 입학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표 수상자와 필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YouTube)로 생중계됐다.

이날 입학식은 국민의례, 신입생 인사, 교수소개, 총장축사, 교수진 소개, 내빈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우영 총장은 축사를 통해 “100주년

을 목전에 둔 우리 전주교육대학교는 참, 사랑, 새로움이라는 교훈 하에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유능한 교원을 양성하는 산실이 되어 왔다”며 “입학생 여러분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교직에 최적화 된 핵심 역량을 갖추고, 현장을 주도하는 교원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학식 후에는 신입생들의 소속감 증대와 대학생활의 빠른 적응을 위한 대학 주관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도내 6개 전문대와 상호발전 위한 협약 체결

고등교육의 질 제고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25일 원광보건대학교 WM관에서 도내 6개 전문대학과 대학의 상호발전을 위한 교육과정·교육자원 공유와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비전대학교를 비롯해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지전대학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된 내용은 ▲미래 신산업시대에 맞는 고등 직업교육의 진흥 및 연구 교류, ▲교육과정 혁신

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상호 정보교류, ▲교육방법 혁신을 위한 교수법 세미나, 특강 등 프로그램 공동 운영,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사업개발 및 추진을 통한 대학교육의 혁신 장려, ▲7개 대학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등이 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일반고 자·신·감 프로젝트 지원설명회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수업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고 자신감 프로젝트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학생배움중심 수업을 ‘신나게’ 활동해, 함께 성장하는 ‘감동적인’ 일반고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주 왕의지빌 훈민정음홀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도내 96개 일반고의 교감 또는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2021학년도 일반고 자신감 프로젝트 지원계획 설명회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 강화 공동 재정 지원 ▲교육과정

다양화 ▲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일반고·대학 연계 주말강좌 및 청소년 상상학교 운영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단위학교별로 학생의 적성·희망·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생 진로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교사의 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 기초학력 더딤 학생 대상 방과 후 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아울러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해 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오순도순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진로중점(교과특성화) 학교 등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인문사회·자연과학·철

학·예체능 영역에 대한 독서·토론·발표 등을 활용한 수업 방법 개선으로 통합형 인재를 양성하며, 일반고와 지역 대학을 연계한 진로직업 탐색, 상상학교 운영 등으로 진로탐색 교육을 내실화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키워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 자·신·감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다양한 학생중심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이며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특성화·다양화하고 학생과 교사의 고교학점제 도입 역량을 강화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 거리두기 등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재학생 심리정서 지원한다

위기관리시스템 3-Code 개발·운영... 위기 케어올 증가

호원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위기관리시스템 3-Code를 개발하고 운영한 결과, 60% 이상의 높은 위기 케어올을 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재학생들의 위기 대상별 맞춤형 상담지원을 강화하고자 DREAM Hope 커리어시스템 내에 위기의 심각 단계를 알리는 3-Code 방식을 적용한 효과로 파악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4 Kit(키트) H-마음방역 시리즈 운영이 위기 케어올을 증가시키는 데 큰 몫을 차지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년 초 K-SCL 95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에 따라 3-Code 방식으로 위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책임지도교수에 게 위기 지원 단계를 알린다.

책임지도교수와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는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개입과 밀착관리를 한 결과, 위기 관리가 필요하던 학생들이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위기관리 및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 Kit H-마음방역 시리즈는 코로나19의 예방과 심리지원을 위한 호원대만의 마음방역 시리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울, 불안, 미래와 취업에 대한 막막함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재학생에게 학기 중 비대면 프로그램 3개와 방학 중 대면 프로그램 1개 등 총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점수가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미영 센터장은 “커리어시스템 내 3-code 체계를 도입하고 4 Kit H-마음방역 시리즈를 적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재학생들의 적응과 심리적 안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호원대 진로심리상담센터는 올해는 재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학생 주도 협력적 학습문화 확산

호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020학년도 Learning Helper 프로그램을 성황리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Learning Helper 프로그램은 학습리더를 선정하고 사전교육, 특강 및 상담, 동아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Learning Helper가 주체가 돼 학습 자치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Learning Helper들은 각각의 학부(과)에 맞춘 학습법 강의자 및 상담자가 돼 학습리더로서 프로그램을 이끌어 간다.

Learning Helper의 선발은 성적이 우수하고 학과에서 모범이 되는 재학생들로서 2020학년도 52명을 선발했다. 지난 3년간 2018학년도 20명, 2019학년도 52명 등 총 124명이 임명됐다.

재학생 및 신입생 특강으로 나눠 신입생을 위한 특강은 학습적응을 지원하고 학습전략 구축을 위해 각 학부(과)별 맞춤형 학습법 특강을 실시하게 된다.

Learning helper로 참여한 유아교육과 A학생은 “Learning Helper로 선발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의 학습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잘 전달해



후배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돕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작업치료학과 B학생은 “신입생 후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첫 대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궁금했던 점과 필요했던 정보들을 후배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 기뻐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대, 동계방학 중 교육환경 개선사업 진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2020학년도 동계방학 기간에 대학혁신사업 일환으로 사회과학대학을 비롯한 7개 건물의 옥상 방수공사와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관리처 시설지원과는 2021학년도 1학기 개강 후 재개될 대면 수업을 위해 각 건물 옥상과 강의실을 사전 점검하고, 그동안 총학생회가 건의한 환경개선 의견 및 관련 부서 업무협조를 통해 약 10억 원의 대학혁신사업비 지

원으로 교육환경 개선 방향을 세워 보수공사를 마쳤다.

특히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강의실 소용달단과 울림방식 등 학생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기초조사를 거쳐 2~5층 강의실 이중창호 교체 및 흡음재 시공공사, 시스템 냉·난방기공사, 강의실 출입문 교체 등이 이루어져 쾌적한 교육환경으로 탈바꿈했으며, 조 소관 1~2층 실험·실습실과 자연과학 대학 서북쪽 전면 창호도 이중창호로 교체했다.

/익산=장영희 기자

새만금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개발 사업 본격 시동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세계캠버리대회 개최 본부로 활용할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이하 센터)’ 개발사업 시행자로 전북도를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말까지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3년 8월 새만금 세계캠버리대회 개최에 맞춰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센터 주 건물은 캠버리 부지 내 랜드마크로 천년의 지혜가 담긴 한지에 전통과 역사를 입혀 커(층층이) 포개진 물건의 층, 겹, 줄)를 쌓는 모습을 형상화 했으며, 건축면적 8,098㎡(지상3

층) 규모로 건립된다.

또한, 건물 내에는 전시·실내 체험 시설, 숙박시설, 대강당 등 복합시설로 조성되며, 실내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건물 외부에는 오토캠핑장, 활동장, 야외공연장, 체육시설 등이 배치된다.

캠버리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국내외 청소년 교육은 물론, 가족 단위 등 일반인들도 체험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새만금과 전북도 지역발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호성 기자